

제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책을 빨리 읽어 버리거나 대략적인 내용 파악 위주로 읽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책을 읽는다면 그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거나 잘못 이해한 채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고 음미하며 사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 시대의 학자 이황은 독서의 목적을 인격 수양이나 자기 완성에 두고 책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함을 강조하며 ‘졸독(卒讀)’과 ‘역람(歷覽)’을 경계하였다. 졸독은 책을 급하게 읽어 버리는 것으로, 이를 이황은 책 읽기를 쫓기듯 끝내 버리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자신의 손자에게 ㉠ 18가지 역사서를 간략하게 정리한 책과 같은 요약본을 읽지 말라고 조언한 것도 이러한 독서 태도와 상통한다. 그리고 역람은 책을 거처가듯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그는 이러한 읽기로는 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졸독과 역람을 경계한 만큼 이황은 책을 읽을 때 서두르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었다. 그런데 중요해 보이는 글자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해 그것이 곧 글의 핵심이라는 선입견에 빠져 글의 본지(本旨)를 무시하는 것은 부분에 가려 전체를 잃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글자와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되 이를 토대로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부분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며 이것이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책 한 권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을 중시한 이황은 눈으로 읽는 것뿐 아니라 손과 입을 통한 읽기도 중시하였다. 그는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구를 필사했으며, 읽기 어려운 책을 자녀들이 깊이 이해하도록 책의 어려운 문장을 베껴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글자와 구절의 뜻을 살피며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이 글쓴이와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며, 내용 기억에도 도움을 준다고 여겼다.

이황은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을 넘어 토론을 겸하는 함께 읽기도 책 내용을 정밀하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독서법으로 보았다. 그는 함께 읽기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책을 끝까지 읽게 되고 잘못 보았거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점을 깨우쳐 개인적 독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인접해 있는 두 못물이 서로를 불어나게 하여 유익하게 되는 것처럼, 함께 읽음으로써 학문과 덕을 닦을 수 있다고 보았다.

1. 밑줄에 드러난 이황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격을 수양하는 것은 책을 읽는 목적 중 하나이다.
- ② 함께 읽기는 책을 끝까지 읽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③ 책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통해 글쓴이와 소통할 수 있다.
- ④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한 후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새겨 가며 읽어야 한다.
- ⑤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책의 내용을 정밀하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요약본을 읽는 것은 원래의 책을 급하게 읽어 버리는 것과 같아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② 원래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요약본에는 부수적인 내용으로 왜곡되어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요약본의 내용이 많은 경우 요약본을 꼼꼼히 읽는 것이 원래의 책을 읽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 ④ 시간을 들여 요약본을 자세히 읽는 것보다 원래의 책을 대략적인 내용 파악 위주로 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 ⑤ 요약본을 읽게 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쫓기듯 빨리 읽을 수밖에 없어 요약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다음은 학생의 독서 일지 중 일부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수업 시간 발표 준비 때 친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해 준 책이 있었다. 그때는 대강 훑어보기만 해서 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 보았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은 ㉢ 옮겨 적으면서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했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은 소리 내어 읽었더니 ㉣ 기억하기가 쉬웠다. 또 ‘개인의 자유 존중’이라는 말이 중요해 보여 관련 내용에 주목하였고, ㉡ 이 말에 책의 주제가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해 글쓴이가 말하려는 바를 따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친구와 의견을 나뉘 보니, 이 말이 부분적인 내용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 토론 끝에 우리는 글쓴이가 전하려는 주제가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정의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달았다.

- ① ㉡는 역람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는 어려운 책을 읽는 자녀들에게 이황이 강조한 독서법에 해당하겠군.
- ③ ㉣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에 해당하겠군.
- ④ ㉡는 특정 부분을 글의 핵심이라고 보는 선입견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는 인접해 있는 두 못물이 서로를 불어나게 하여 유익하게 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감정 미학’은 미의 본질이 감정에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음악에서의 감정 미학은 바로크 시대에 본격화된 개념이다. 바로크 시대 이전에도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주목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감정을 모방한 음악이 인간의 도덕적 속성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음악이 주는 감정적 흥분이 인간의 도덕적 성향인 에토스(ethos)에 영향을 미쳐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음악을 교육의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음악이 인간의 윤리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 여기는 이러한 사고는 음악에서의 감정 미학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중세도 고대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윤리적 영향력을 중요시하여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음악의 윤리적 작용보다는 감정적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감정을 음악에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 시대의 음악가들은 적극적으로 감정을 음악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감정은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작곡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작곡가들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류한 후 리듬, 선율,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을 각각의 감정들과 논리적으로 연결하였다. 청자들의 감상 역시 음악과 대응된 감정을 식별해 내는 것일 뿐, 가슴에 호소되는 바를 ㉡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바로크 시대에 본격화된 음악에서의 감정 미학은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게 된다. 낭만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작곡가 자신이 느낀 주관적 감정이 음악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감정의 의미가 작곡가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바뀌면서, 작곡가는 자신의 개성이나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자에게도 작곡가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음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해졌다. 이렇게 낭만주의 음악에서 음악이 자율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 담아내는 것이 중시되면서,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예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나)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은 ‘음악이 슬프다.’라는 일상적 어법에 대한 분석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무생물인 ‘음악’에 ‘슬프다’라는 술어가 적용될 때 ㉣ 생기는 논리적 모순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환기론과 인지론의 입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두 입장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음악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달랐다.

환기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매트러버스는 음악이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함으로써 그 감정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음악이 슬프다.’를 ‘음악이 내게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로 해석하면서 음악이 아닌 청자를 주체로 보는 것이다. 매트러버스는 음악을 들으며 청자가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이러한 청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그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환기론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데 부합하는 이론이지만, 음악에서 느끼는 감

정을 음악이 ㉤ 지니는 속성이 아닌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론의 비판을 받는다.

인지론을 대표하는 키비는 음악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음악이 특정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청자가 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다고 주장한다. 무생물인 음악이 감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음악이 슬프다.’를 ‘음악이 슬픔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표현적 속성은 리듬이나 선율,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말한다. 키비는 짧은 몇 마디의 형식적 요소에 특정 감정이 단편적으로 구현되어 있어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그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인지론은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환기론의 비판을 받는다.

로빈슨은 상상 이론에서 음악이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청자에게 다양한 감정도 환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감정의 주체로 음악 내의 허구적 존재인 ‘페르소나’를 상정하는데, 여기서 페르소나는 음악의 형식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청자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져 청자와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존재를 말한다. 우선, 로빈슨은 작곡가에 의해 리듬, 선율, 화성 등의 움직임에 감정의 흐름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음악 속 페르소나가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고 페르소나와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해 청자는 그 감정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로빈슨은 음악이 페르소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정들도 청자에게 환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 청자가 느끼는 실제 감정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로빈슨은 상상 이론을 통해 인지론과 환기론의 입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시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가)는 음악이 감정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예술로서의 음악이 갖는 가치를 특정 시대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 ③ (나)는 철학자들의 논쟁을 소개하며 시대별로 음악관이 달라진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 ④ (나)는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두 관점의 차이를 밝힌 후 그 관점들을 절충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며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5. (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 ② 바로크 시대에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 ③ 바로크 시대 이전에는 작곡가의 개성과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이 강조되었다.
- ④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감정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 ⑤ 낭만주의 시대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6.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악이 슬프다.’가 갖는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 ② 환기론은 인지론이 청자의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 ③ 인지론은 환기론이 청자의 감정을 음악이 지니는 속성에서 찾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④ 환기론과 인지론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 ⑤ 환기론과 인지론 모두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적 변화를 인정한다.

7. 다음은 음악회에 다녀온 학생이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나)를 바탕으로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의 슬픔에 대한 세 개의 자장가’ 중 하나로 불리는 브람스의 「간주곡 Op. 117 No. 2」가 피아노로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 처음 몇 마디의 피아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슬펐다. ㉡ 그리고 그 슬픔은 점점 나에게 서러움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부분에서 ㉢ 작곡가가 불협화음을 통해 구현하려고 했던 슬픔을 느낀 친구와 달리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 ... (중략) ... ㉣ 3박자이지만 중간에 2박자처럼 들리도록 구현된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바뀌고 있었다.

- ① ㉠의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를, 매트러버스는 청자가 음악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겠군.
- ② ㉠의 ‘슬펐다’를, 키비는 청자가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인지한 것이라고 여기겠군.
- ③ ㉡의 ‘서러움으로 다가왔다’를, 매트러버스는 음악이 청자에게 서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겠군.
- ④ ㉢의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를, 로빈슨은 청자의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불일치한 것으로 보겠군.
- ⑤ ㉣의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바뀌고 있었다’를, 로빈슨은 감정의 주체가 작곡가에서 청자로 변갈아 바뀌는 것으로 보겠군.

8.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가), (나)에 대한 혜강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혜강은 감정이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별개라고 보고, 음악이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고 여긴 기존의 음악론에 반대하였다.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고정된 대응 관계로 파악한 점과 음악을 도덕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혜강은 음악의 본질은 자연이므로 자연을 닮은 조화로운 음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높낮이, 빠르기, 강약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에 의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발출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 ① 혜강은 (가)에서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중요시한 중세의 음악관에 반대하겠군.
- ② 혜강은 (가)에서 음악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려 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을 비판하겠군.
- ③ 혜강은 (가)에서 음악이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입장을 부정하겠군.
- ④ 혜강은 (나)에서 음악의 형식적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고 본 키비의 관점에 동의하겠군.
- ⑤ 혜강은 (나)에서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설명한 매트러버스의 입장에 수긍하겠군.

9. 문맥상 ㉠ ~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간주(看做)하는
- ② ㉡: 탐색(探索)하는
- ③ ㉢: 도출(導出)하는
- ④ ㉣: 수립(樹立)되는
- ⑤ ㉣: 생성(生成)하는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그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다. 조세 귀착은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정부는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조세 귀착을 고려한다.

조세 부담의 법적 귀착은 법적으로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의미하며, 조세 부담의 경제적 귀착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지는 부담을 의미한다. 흔히 어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모두 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자루당 700원인 볼펜에 100원의 물품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된다고 하자. 이때 법적 귀착은 공급자에게 발생한다. 공급자가 기존 가격에 100원을 더 받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 새로운 균형 가격이 760원으로 ㉠오르게 되었다고 할 때, 조세 부과 이전 가격보다 6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공급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상쇄된다. 이는 수요자가 기존보다 60원을 더 지불하고 볼펜을 구입하게 되면서 60원의 조세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공급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금액은 760원에서 조세 100원을 뺀 660원이다. 최종적으로 공급자에게는 40원, 수요자에게는 60원의 조세가 귀착된다.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로 인해 공급자는 조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낮은 금액을 갖게 된다. 수요자는 균형 가격에 세금을 더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만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게 되는데, 이는 공급자에게 조세 부담의 일부가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가로 인하여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가 더 조세 부담을 많이 할까? 이것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다.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반면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영향을 적게 받는다면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수요와 공급 중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하고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은 조세를 적게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탄력성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에도 영향을 주는데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가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보다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든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세수*를 늘리려고 할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재화를 선택한다.

* 세수 : 국민에게서 조세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조세 부담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
- ② 법적 귀착 대상과 경제적 귀착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세 귀착이 필요하다.
- ③ 정부가 조세 납부의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 주면 조세 부담은 공평해진다.
- ④ 조세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면 법적 귀착이 있는 사람은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는다.
- ⑤ 일반적으로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11.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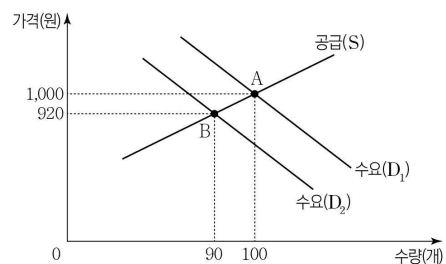
갑국의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물품에 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한 물품 ㉡와 ㉢ 중, ㉢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보다 크기 때문에 (㉠)를 선택한 후, 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이 물품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것을 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 때문에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 (㉣)가 조세 부담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	㉢
①	㉡	크기	수요자
②	㉡	작기	공급자
③	㉡	작기	수요자
④	㉢	크기	공급자
⑤	㉢	작기	수요자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인 빵에 한 개당 200원의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었고 조세로 인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 ① 200원의 물품세는 수요자에게 발생한 법적 귀착이겠군.
- ② 점 B에서 수요자가 지불하는 빵 한 개의 값은 1,120원이겠군.
- ③ 점 B에서 공급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금액은 빵 한 개당 920원이겠군.
- ④ 점 A에서 점 B로의 이동으로 공급자에게 전가된 조세 부담은 120원이겠군.
- ⑤ 조세 부과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D1에서 D2로 이동했겠군.

13. ㉔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보다 월급이 많이 올랐다.
- ② 저녁상에 오랜만에 갈비가 올랐다.
- ③ 그 단어는 이번에 국어사전에 올랐다.
- ④ 한밤중이 되어서야 나는 기차에 올랐다.
- ⑤ 등산객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산에 올랐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포자멸사가 적절히 일어나야 한다. 세포자멸사는 세포가 자기 내부에 있는 효소를 활용해 자신의 DNA와 핵 등을 파괴하는 것이다. 세포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파열되는 것인 괴사와 달리, 세포자멸사는 능동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세포자멸사는 신체 내 조직에서 불필요한 세포를 없애기 위해 일어나는데,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 꼬리가 사라지는 것이 이에 속한다. 또한 손상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비정상적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세포자멸사는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 세포자멸사의 발생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DNA가 자외선 노출로 인해 손상되거나 세포에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등 세포가 손상되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세포 내 Bcl-2 단백질의 농도가 감소한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막과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Bcl-2 단백질은 세포자멸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단백질이 감소하며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파괴된다. 이로 인해 방출된 미토콘드리아 내의 물질들이 단백질 분해 효소인 카스파제를 활성화하는데, 이 카스파제가 세포자멸사를 실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활성화가 먼저 일어난 카스파제-9가 실행 카스파제를 절단하여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실행 카스파제는 세포의 DNA를 절단하여 붕괴시킨다.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포를 대상으로 ㉡ 세포자멸사의 유도가 일어나기도 한다. 면역세포의 일종인 세포독성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자멸사하게 하여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세포 표면에 바이러스 단백질이 나타난다.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인식한 세포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에 결합하여 세포막에 구멍을 뚫는 단백질을 분비한다. 세포독성 T세포는 세포막에 생긴 구멍을 통해 세포 안으로 실행 카스파제를 활성화하는 과립효소 B를 유입시키고, 이로 인해 활성화된 실행 카스파제가 DNA를 붕괴시킨다.

세포 내부에서 실행 카스파제에 의해 DNA가 붕괴되면 자멸사한 세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DNA의 사다리 모양이 나타난다. 그리고 세포의 형태도 변화하는데, 먼저 세포가 쪼그라들며 세포의 핵이 분절되고, 세포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파편화가 일어난다. 이후 세포막을 구성하는 2개의 층이 뒤섞이며 세포막에 있는 포스파티딜세린이 바깥쪽으로 노출된다. 이 포스파티딜세린으로 인해 주변의 식세포들이 자멸사한 세포

를 인식하고 이를 포식한다. 자멸사한 세포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새어 나오기 전에 포식으로 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괴사와 달리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

세포자멸사는 비정상적 세포가 제때 제거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 한다. 최근에는 세포자멸사를 활용하여 악성 종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치료 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4.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세포자멸사와 괴사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 ② 질병 치료 분야의 세포자멸사 연구 성과는 무엇인가?
- ③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된 상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④ 세포독성 T세포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⑤ 파편화가 일어난 세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가?

15.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포에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카스파제의 활성이 감소하겠군.
- ② 죽은 세포의 DNA 모양을 관찰하면 세포의 자멸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비정상적 세포가 자멸사하여 제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야 하겠군.
- ④ 괴사한 세포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괴사한 세포의 세포막이 뒤섞이기 때문이겠군.
- 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멸사한 세포는 세포독성 T세포에 의해 생긴 구멍을 통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내보내겠군.

1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세포 내 단백질과 DNA 간 결합이, ㉡에서는 세포 간 결합이 이루어진다.
- ② ㉠에서는 세포 내부의 효소가, ㉡에서는 세포 외부의 효소가 세포의 DNA를 절단한다.
- ③ ㉠은 미토콘드리아 내의 물질이 방출되어야, ㉡은 미토콘드리아 내의 물질이 방출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
- ④ ㉠과 ㉡에서는 모두 DNA를 붕괴시키는 효소가 카스파제에 의해 활성화된다.
- ⑤ ㉠과 ㉡은 모두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시작된다.

1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신생아의 두뇌에서는 생후 3개월 동안,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신경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후 다른 신경 세포와 연결되지 않은 세포들은 제거되면서 뇌의 구조가 갖추어지고 뇌가 원활히 기능하게 된다.

(나) 과도한 자외선이 조사된 각질 형성 세포들은 DNA 염기 구조가 변화해 자멸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몸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 한다. 세포자멸사의 조절에 이상이 생겨 DNA가 변이된 세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왕성하게 분열한다면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다) 식물 추출물 A를 배양 접시에 담긴 종양 세포 집단에 처리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험 카스파제에 속하는 카스파제-3의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처리 후 48시간이 지나자 Bcl-2의 발현량이 감소하였다.

- ① (가)에서 일부 신경 세포는 올챙이의 꼬리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자멸사하겠군.
 ② (나)에서 각질 형성 세포들이 자멸사한 것은 생존이 불가한 상황 때문이겠군.
 ③ (다)에서 A는 비정상적 세포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겠군.
 ④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세포자멸사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군.
 ⑤ (가)에서는 생후 3개월 이후부터, (다)에서는 A를 종양 세포 집단에 처리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세포자멸사가 감소하겠군.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 효제충신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제1장>

남산에 맑던 술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이 그다지도 날랜시고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A]

<제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B]

<제3장>

설월에 매화를 보러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쉬인 꽃 여원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이 이 향기 알면 애 풀일까 하노라

[C]

<제6장>

— 이신의, 「단가육장」 —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우로: 비와 이슬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적객: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나)

백옥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섞어 치니

해질 녘 대나무에 옷소매 얹고 차구나

난초를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 곳 구름 길이 험하구나

다 썩은 닭의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 초췌한 이 얼굴이 임 그려 이리한가

천 층 파도 한가운데 백 척 장대에 올랐더니

뜻밖의 회오리바람 환해* 중에 내리나니

억만 길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네

노나라 호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나라 사람이 취한 잔에 월나라 사람이 무슨 탓인가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蘭)이 반이나 시들었구나

(중략)

바람에 부대껴 흑룡강에 떠러진 듯

천지는 끝이 없고 물고기와 기러기도 무정하니

옥 같은 얼굴을 그리다가 말했구나

매화나 보내고자 역로를 바라보니

처마 위에 뜬 달을 예전에 보던 낮빛인 듯

따뜻한 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푸른 바다 넓은 곳에 뉘조차 흠어들지니

㉢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고

태상 칠위분이 옥진군자 명이니

하늘 위 누각에서 피리를 울리시며

㉣ 지하 북풍에 죽을 운명 벗기실까

죽기도 운명이요 살기도 하늘이니

진채의 횡액을 공자도 못 면하며

죄 없이 잡힌들 군자라도 어이하리

오월 서리가 눈물로 어리는 듯

삼년 가뭄도 원통함에서 일어나도다

— 조위, 「만분가」 —

* 환해: 관리의 사회.

* 옥석: 옥과 돌이라는 뜻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다)

강·회·하·한은 물 중에서 큰 것이다. 사람들이 다 반총·동백·곤륜·민산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네 산에 달하기 전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대개,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다. 물이 땅 밑에 있을 때는 비록 잠복하여 궤어 있으나 땅 위에 나오게 되면, 유동하기도 하고 가득 차기도 해서, 그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둡다. 그러므로 성인은 땅 밑에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 이미 사괘*를 만든 후에 비괘*를 다음에 이었으니,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를 보인 것이다.

㉠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또 축축하게 젖는 것은 물의 남은 기운이다.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줄달아 잇닿다가 장강에 통하고, 큰 바다에 달하여는 호호하고 꽤연히 넓고 넓어 활각 닥치어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하동에 있을 때에 집 곁에 작은 샘이 있는데, 그 근원이 수풀 속에 파묻혀 나오는 방향을 알지 못하므로,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 역측하고, 더럽게 여겨 먹지 않으려 했다. 내가 가서 보고 그 근원을 청소하고 그 흐름을 터놓아, 조금 동쪽에다가 벽돌로 우물을 만드니 바로 이웃에 있는 냉정으로 이름난 것과 수맥이 같고 맛이 또 같으니, 한 근원이요 물줄기만 나누어진 것이었다. 이에 부모들이 서로 와서 고마워하며 왕래하고 길어 써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진실로 옛말과 같이 지혜를 써서 물을 흐르게 한 것인가, 또한 흐르는 것을 거슬러 근원을 알아낸 것인가 하였다.

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 재주가 족히 임금을 착하게 하고, 백성을 윤택하게 할 선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곁에서 비방하면, 물러와서 거칠고 더러움을 참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하루아침에 성군과 지기를 만나 천하에 그 도를 행하게 된다면, 또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오늘날 **윗사람**은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그 **마음의 곡직**에는 **근본하지 않**으니, 또한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그 근원은 알지 못하고 같다.

“하늘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징험한다.” 하였으니, 지금 물을 논함에 또한 그러하다. 맹자의 말씀에, “물을 보는 데는 방술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라고 하였다. 나는 또 말하기를, “물을 보는 데는 방술이 있으니, 반드시 그 근원에 근본하라.” 하였다.

— 이침, 「원수(原水)」 —

*사래 : 땅속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비래 : 땅 위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삶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가)는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역사적 인물을 호명하며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9. [A] ~ [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많은 술’을 사라지게 한 ‘부근’을 통해 ‘우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뜰 가’에 ‘채비 비비’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다.
- ③ [C]에서는 ‘설월’에 핀 ‘매화’를 통해 ‘호접’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
- ④ [A]에서 드러난 ‘난 후’의 상황은 [B]의 ‘적객의 회포’와 연결되어 세상과의 단절 의지를 드러낸다.
- ⑤ [B]에서 ‘창밖’의 ‘새우’를 보는 상황은 [C]의 ‘창’을 열어 ‘향기’를 맡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2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 입을 향한 그리움에 수척해진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물음이다.
- ③ ㉢: 입과 재회하지 못한 화자의 비통한 심정을 부각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④ ㉣: 절망에서 벗어나겠다는 화자의 결심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⑤ ㉤: 사람들의 단편적인 시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물음이다.

21.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회·하·한·의 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시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물의 성질을 바탕으로 물이 근원에 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는 순서를 제시하며 물이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세간의 통념을 바로잡고 있다.
- ④ 하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쓰이는 이치에 대해 생각이 바뀐 계기를 밝히고 있다.
- ⑤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나)와 (다)는 작가가 경험한 부정적인 현실을 자연물과 연관 지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나)는 억울하게 유배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다)는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과 인간사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

- ① (나)는 ‘백옥 같은’ ‘마음’을 지켰지만 ‘무서리’가 ‘섞여 치’고 ‘억만 길 못에 빠’졌다는 것을 통해 억울하게 유배된 경험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는 ‘환해’에 내린 ‘뜻밖의 회오리바람’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자연물과 연관 지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나)는 ‘달’을 보고 ‘예전에 보던 낮빛’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다)는 ‘작은 샘’을 ‘더럽게 여’긴 것을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 일과 연관 지은 것을 통해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과 인간사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다)는 ‘윗사람’이 ‘마음의 곡직’에는 ‘근본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금붕어는 어항 밖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 잎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다. 눈이 가락지처럼 빠져져 나왔다. 인젠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 볼게다.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떡가루를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①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도 있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대쳐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얇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향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아침에 책상위에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이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려본다. 꿈이라 가르켜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를 건너서 지나해의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도빛 해초의 산림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쪼겨댕겨 보고도 싶다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피려 죽여버려야 한다. 배설물의 침전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간다.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만 할 고향이라 생각한다.

- 김기림, 「금붕어」 -

(나)

아버지는 내가 법관이 되기를 원하였고
가난으로 평생을 찌르신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어찌다 시에 눈이 뜨고
애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는 부모의 뜻과는 먼 길을 걸어왔다
나이 사십에도 궁터를 못 벗은 나를
살 붙이고 살아온 당신마저 비웃지만
서러운 것은 가난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맘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 사는 일에 길들지 않은
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도 노엽다
내 사람아, 울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아라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살기가 죽기보다 어렵구나
어쩌랴, ㉠ 바람이 탄 데서 불어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한 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지

- 정희성, 「길」 -

2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특정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24.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어느새’를 ‘화장한 따님’과 연결하여 금붕어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1연에서 ‘오를래야 오를 수 없’다는 생각은 3연에서 ‘지느러미’가 ‘향아리를 끊는 일이 없’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3연에서 ‘유리벽’을 ‘국경’이라고 여기는 것은 금붕어가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4연에서 ‘붉은 바다’에 대해 금붕어가 떠올린 생각은 5연의 ‘검푸른 비늘을 입’은 상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5연에서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기 위해 6연에서 금붕어는 ‘배설물의 침전처럼’ ‘연령만 쌓’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2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고요한 내면세계를, ㉡은 내면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소재이다.
- ② ㉠은 현재의 안전한 생활을, ㉡은 현실에서의 유흥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③ ㉠은 시적 대상의 내적 성찰을, ㉡은 화자의 외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④ ㉠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식을, ㉡은 무력한 존재로서의 자각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은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은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품 속 상황에 대응하는 대상이나 화자를 통해 주제 의식이 형상화되기도 한다. (가)는 자유로운 세계를 동경하지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금봉어를 통해 이상이 좌절되는 양상을 드러내며, (나)는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가)는 꿈꾸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나)는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아담하게 / 꼬리를 젓고 돌아’서서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는 것에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해초의 산림속’을 다니고 ‘쓴 매개’를 ‘삼키고 싶’어 한 것에서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에서 ‘법관이 되기를 원’했지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는 것에서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에서 ‘궁티’를 벗지 못한 ‘나’가 ‘한 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겠다고 한 것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꿈을 오프려 /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과 (나)의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안군이 계단 아래에 있다가 임금께 아뢰었다.
 “비록 혼례는 하였으나 아직 첫날밤을 치르기 전입니다. 이제 부마로 간택하셨사오니, 왕명을 순순히 좇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니 거역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임금이 화난 얼굴로 말하기를,
 “너를 사랑하여 부마로 정하였거늘, 어찌 핑계를 대면서 감히 거절한다 말이나?”
 지경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최 씨 집안 여자와 혼례를 치르는 일이 없었다면, 어찌 감히 부마로 간택되는 은혜를 사양했사옵니까?”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네가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를 하더니 세상에 헛된 뜻이 생겨서, 웅주 정도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아니냐? 가장 무엄하다.”

지경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신이 어찌 그런 마음을 가졌겠사옵니까? 누구나 웅주마마와의 혼인을 원할 텐데 제가 어찌 꺼리오며, 신의 나이 아직 어리지만 제 말에 거짓이 없사옵나. 조정의 명사들이 잔치 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그들을 불러 물어보옵소서.”

임금이 분노로 얼굴빛이 바뀌어 말하기를,

“혼례를 올려도 첫날밤을 치르기 전에는 남이다. 옛 사례가 있으니 성종대왕 때에 경에 공주가 혼례를 하고 첫날밤을 보내기 전에 돌아가셨다. 이에 파혼하고 부마의 지위를 거두어 다른 여자와 혼인하도록 조치하신 적이 있거늘, 네 위엄이 성종대왕보다 더하다는 것이냐?”

지경이 아뢰기를,

“신의 경우는 그와 다르옵니다. 그때 공주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제 아내 된 최 씨는 살아 있사옵나. 신이 부마가 되면 최 씨는 청춘과부가 될 것이니, 전하의 너그럽고 어지신 덕택으로 제가 인륜을 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회안군이 아뢰기를,

“빙채를 거두고 최 씨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낸다면, 어찌 홀로 늙겠사옵니까?”

지경이 노하여 아뢰기를,

“에시당초 회안군이 소관에게 구혼하다가 최가에 정한 고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일로 맺힌 마음이 있어 전하께 나를 부마로 천거한 게 아니오? 전하께 해를 끼치고 아부한 죄를 먼저 못할 것이외다. 조정 신하의 자식이 많거늘 아내를 얻은 신하에게 구태여 구하시고,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시니 전하의 밝지 못하심이 한이로소이다.”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말하기를,

“회안군은 과인의 동생이니 네게 작은 임금이라. 내 앞에 서 욕하고 나를 사리 판단이 어두운 임금으로 능멸하니, 자식 못 가르친 죄로 네 아버지를 죄 주리라.”

지경이 웃으며 아뢰기를,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삼구 년에 일월(日月) 같으신 성덕이 십산궁곡에 미쳤거늘, 유독 소신에게는 밝지 않으심이 이렇듯 하시니 신은 죽어도 행복지 아니하리이다.”

임금이 더욱 노하여 말하기를,

“내 윤지경을 못 제어하리오. 군부를 욕한 죄로 금부에 잡아들이고, 그 아비 윤현도 함께 가두도록 하라. 길일을 받아 혼례 준비를 하고, 최홍일에게는 빙채를 도로 주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웅주와 감제로 혼인한 지경은 웅주를 박대하고 최 씨와 함께 지내려고 한다. 임금의 압력으로 가족들은 최 씨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나, 지경이 사실을 알고 최 씨를 다시 만나게 된다.

부마가 삼 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부인을 다시 만났으니 떠날 줄 알리오. 비복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양쪽 집 식구들을 모두 피해 왔으니, 종이 오거든 미리 일러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라.”

부마가 최 부인을 만나 새로이 진중한 사랑이 전보다 배나 더하더니, 한방에 거처하면서 일시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러구러 여러 날이 되니 윤 공이 생각하기를, 심사가 사나위 천계산에 있는 원당에 갔는가 하고 찾지 않았다. 옹주는 본래 불화한 사이라 거취를 모르니 찾지 않았다. 임금이 조회에 여러 날 불참함을 이상하게 여겨 찾으시니, 그제야 찾기를 시작하여 친구의 집과 천계산 절에 가 보았으나 종적이 없었다. 괴이하게 여겨 찾다가 돌아와 보니, 부마가 타던 말이 있었다. 행여 최 씨 있는 곳에 갔는가 의심하여 즉시 가 보았으나 미리 숨어서 보지 못하고, 거기도 아니 간 줄 알아 두루 찾아도 찾지 못한 지 수십 일이라.

조정에서는 윤지경이 마음이 사납고 어지러운 나머지 미쳐서 달아났는가 의심하고, 임금이 매우 놀라 밤낮으로 번뇌하였다. 윤 공이 의심스런 마음이 들어 영리한 하인을 시켜 부지불각에 들이닥쳐 보라 하니, 과연 최 씨의 처소에 있는지라. 이대로 임금에게 고하고 죄를 청하니, 환관 김송환을 불러 죄상을 밝히고 부르라 하시니 이때는 유월이라.

지경이 대청마루에 대나무 자리를 깔고 수놓은 방석을 베고 최 씨를 곁에 앉히고 발 벗고 책을 보는데, 시비 들어와 궁궐에서 사람이 왔음을 고했다. 부마가 최 씨를 곁에 앉힌 채 들어오라 하여 송환이 들어와 중계에 서니, 부마가 방석에서 머리만 들어 보다가 말하기를,

“네 어찌 왔느냐.”

송환이 답하여 말하기를,

“부마를 잃은 지 스무 날이 지나자 전하께서 놀라시어 수라도 못 드시고 지내시더니, 오늘에야 이곳에 숨어 계심을 아시고 노하시어 송환에게 불러오라 하시나이다.”

부마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르되,

“전하께서 가장 부지런하시고 부절없도다. 신하 제 아내 [B] 데리고 있는 것을 꺼려 잡으려고 보내시니, 조정에 애처(愛妻)하는 관원이 몇이나 잡혀 들어왔느냐.”

송환이 어이없어 웃으며 말하기를,

“부마께서 옹주를 박대하시고 최 부인에게 혹하여 **문안 불참**하신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또 그저께 박 귀인 생신이었는데 그 사위로서 불참함을 문죄하려 하시더이다.”

지경이 벌떡 일어나 앉아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혼군이 요첩에게 혹하여 소인과 함세하여 흥계를 깊이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현신충량*을 살해하고, 천하박색 첩탈을 위하여 나를 괴롭게 보채느냐. 간특한 첩의 생일이 무슨 대수라고 그리 대단하게 구시더냐. 그저 신하를 보려 부르시면 가려니와, 박 귀인 생일 불참 죄와 옹주 박대한 죄로 부르시면 끌어도 아니 가리라.”

— 작자 미상, 「윤지경전」 —

* 빙재: 혼인 전에 신랑이 신부집에 보내는 예물.

* 현신충량: 영리하고 어진 신하의 충실하고 선량함.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 묘사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인물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관은 임금의 명을 전하며 윤지경의 돌변한 태도에 당황해 한다.
- ② 윤지경은 회안군으로 인해 자신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토로한다.
- ③ 윤지경은 자신을 찾는 사람이 오면 미리 알려 달라고 하인에게 당부한다.
- ④ 윤 공은 윤지경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최 씨의 처소로 사람을 보낸다.
- ⑤ 임금은 윤지경이 허황된 욕심이 생겨서 옹주와의 혼인을 거절한다고 생각한다.

29.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으며, [B]는 상대방의 태도를 조롱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방의 변심을 비판하고 있으며, [B]는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 ③ [A]는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하고 있으며, [B]는 상대방의 제안에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
- ④ [A]는 상대방의 언행을 직접적으로 꾸짖고 있으며, [B]는 상대방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 ⑤ [A]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의도적으로 떠보고 있으며, [B]는 상대방의 마음을 계획적으로 회유하고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윤지경전」은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며 애정을 성취하는 주체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주인공은 강압적인 왕권을 비판하고, 애정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신의를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과 왕권의 대립이 토론 방식으로 서술되어 독자에게 논쟁적 재미를 준다는 점에서 기존 애정 소설과 차별성을 갖는다.

- ① ‘옛 사례’의 언급에 대해 ‘신의 경우는 그와 다르’다고 말하는 데에서, 기존 애정 소설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구태여 구하시고,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니 ‘밝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서, 강압적인 왕권을 비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시어 ‘성덕이 심산궁곡에 미쳤’다고 하는 데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금부에 잡아들이고’ ‘혼례 준비를 하’라는 데에서,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삼 년’ 만에 ‘부인’을 다시 만나 ‘한 달 가까이’ ‘문안 불참’했다는 데에서, 주체적인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완벽한 질서를 부르짖는 교장 선생님은 나무가 물들어 매 일매일 낙엽을 떨구기 시작하면 환경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아이들을 나무에 올려 보내거나 장대를 휘둘러 낙엽을 한꺼번에 깨끗이 떨구게 하곤 한 번에 쓸어 내게 했다. 그래서 무릉국민학교 교정의 나무들은 가을도 깊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나목(裸木)이 된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제작년에도 그랬었다. 나는 변기에 앉아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발가벗긴 나무들을 바라볼 적마다 정서의 불모지대를 보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었다. 그리고 완벽한 질서를 위해 행해지는 그런 유의 무리가 완전한 학습을 위해선 또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을까, 또 눈에 보이는 무리가 저렇게 추하거늘 눈에 안 보이는 무리는 얼마나 끔찍할까를 자못 심각하게 회의했었다. **그런 유의 회의에 사로잡히면** 내 아이들이야말로 낙엽을 한꺼번에 떨구는 부자연율 강요당하고 있는 어린 나목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로서의 가책과 사랑으로 가슴이 저렸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불편은 변기에 앉았는 동안만 나의 것이었다.

아파트의 생활 양식이란 게 티끌만 한 불편도 허용 안 하는 것처럼, 내 생활의 안일은 내 마음의 불편을 더운물이 눈 녹이듯 흔적도 없게 했다.

변기에 앉아 있는 동안이라도 불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나의 오랜 버릇 때문이었다. 양친한 소년이었을 적에도 뒷간에 앉았는 동안만은 엄청난 모반도 꿈꿀 수가 있었던 나의 오랜 버릇 때문이었다.

아내가 돌아왔다. 아이들이 엄마를 반겼다. 아내는 서양 여자처럼 아이들을 능숙하게 포옹하고 뺨에 뽀뽀를 했다.

“엄마야, 우리 반이 수혜 의연금 모금에서 일등 했어. 그래서 내일 신문사로 전달하러 가는 대표로 뽑혔다, 나.”

딸애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잘됐다. 아이, 신동한 내 새끼.”

아내가 다시 딸애를 포옹하다 말고 밀치더니 옷장으로 달려갔다.

“가만있자, 뭘 입혀 보내지? 사진이 잘 받는 걸로 입혀야 텐데…….”

아내는 딸애의 ○○○장 속에 첩첩이 걸린 옷 중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딸의 어깨에 걸쳐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땡개치고, 다시 땡 것들 걸쳐 보는 일을 되풀이했다.

올여름 장마에 구시가에선 지독한 물난리를 겪었고 많은 수재민을 냈다. 각급 학교 및 사회단체에선 즉각 구호 금품을 걷기 시작했다.

무릉국민학교는 수재민뿐 아니라 모든 불우 이웃 돕기 운동에 열성적이었다. 그 결과 다른 학력 경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학교 중에서 단연 으뜸가는 성과를 거두어 신문에 자주 오르내렸다.

수재민은 여름마다 잘도 생겼고, 온정을 기다리는 불우 이웃은 겨울마다 잘도 생겼다. 무릉국민학교가 이름을 떨칠 기회도 그만큼 자주 생겼다.

일등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교장 선생님은 무릉국민학교가 일등 가는 **모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교내에서 반끼리 경쟁을 붙이는 **표안을 강구해** 냈다.

모금 실적이 가장 우수한 반은 반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상장을 주어 칭찬하고, 그 반 반장 부반장은 학교를 대표해서 신문사에 성금을 전달하러 갈 수 있는 영광을 준다는 게 그거였다.

교장 선생님은 청소도 환경 미화도 실력 고사도 고운 말 쓰기도 착한 일 하기도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이기를 좋아했다. 아이들의 조그만 가슴이 늘 경쟁의식으로 고무풍선처럼 충만해 있도록 하는 거야말로 교육의 사명이란 신념에 투철했다.

딸애는 부반장이다. 작년 연말 이웃 돕기 모금 때 딸애의 반은 이등을 해서 애석 상장을 타서 반에 걸어 놓을 수는 있었지만 신문사에 가서 모금한 걸 전달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광만은 애석하게도 놓치고 말았다.

그때 아내와 딸애는 어서어서 여름이 와서 다시 수혜가 나서 **수재민 돕기**를 할 수 있기를 조급스럽게 **별렀었다**. 마침내 소원이 성취된 것이다.

(중략)

이 단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증권 회사 건물이다. 여러 증권 회사의 무릉 출장소가 한데 모여 있는 건물이니만큼 거대하다.

금속성인 광택을 지니고 하늘 높이 예리하게 솟아 있는 걸 그 꼭대기까지 쳐다볼라치면 아똥하면서 현기증이 난다.

내가 그 앞에서 번번이 압도당하는 것은 그 높이 때문만은 아니다. 미구에 아내가 이 건물과도 인연을 맺을 것 같은 예감 때문이다. 저녁나절의 이 거리엔 산책을 나왔는지, 외식을 나왔는지 별 불일 없이 오락가락하는 가족들이 많이 눈에 띈다.

가족이라야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 데리고 있다. 때로는 아이들끼리 아는 척을 하기도 한다. 어른처럼 새침하고 예의 바르게 아는 척을 한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아는 척을 안 했지만 한 사람도 낯설진 않다. 비슷한 옷차림에 비슷한 표정들을 하고 있다. 특히 타협적이면서도 깔보는 듯한 표정 때문에 이웃끼리라기보다는 한 핏줄끼리 같은 혐오감 섞인 친근감조차 그들에게 느끼게 된다. **찰사는 사람다운 우월감**으로 함부로 남을 깔보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이중성이야말로 아내의 개성일 뿐 아니라 무릉동 주민 누구나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나는 별안간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급히 가까운 양식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실내는 침침하고 거울은 눈에 띄지 않았다.

양식집 속에도 젊은 부부와 한두 명의 아이들로 된 가족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나는 능숙하고도 권태롭게 칼질을 하는 아이들을 뚫려미 바라보면서 내 아이나 남의 아이나 어딘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어른을 고대로 축소해 놓은 것 같아 보여서였다. 엄마나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로 아이들은 하나같이 작은 어른이었다. 마치 성장을 억제해서 키운 **문제의 나무**하고 묘목하고 다른 것처럼.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하는 태도도 그렇고 작은 어른이지 조금도 아이들답질 않았다. 특히 아이들이다운 호기심이 없는, 타협적이면서도 깔보는 듯한 표정이 결정적으로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만들고 있었다.

이 거리의 아이들이 아이들답지 않다는 발견이 새삼스러운 건지 케케묵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난 새삼스럽게 그 발견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 박완서, 「낙토(樂土)의 아이들」-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교장 선생님의 교육적 신념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 ② 아내는 딸이 학교를 대표해서 성금을 신문사에 전달하기를 원했다.
- ③ 아내가 건물과 관련될 것 같은 예감으로 인해 ‘나’는 건물에 압도당한다.
- ④ ‘나’는 무릉동 주민의 표정을 아내와 연관 지으며 무릉동 주민의 모습을 낯설지 않게 느낀다.
- ⑤ 딸을 학교 대표로 세우려는 교장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 딸의 반은 작년보다 모금 실적이 우수해졌다.

33. 문제의 나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장 선생님’이 추구하는 ‘완벽한 질서’와 모순되는 소재이다.
- ② ‘옷’을 되풀이해서 골라주는 행위로 드러나는 ‘아내’의 불안을 의미한다.
- ③ ‘젊은 부부’가 가진 특성을 지니지 않은 ‘양식집 속’ ‘아이들’을 의미한다.
- ④ ‘아이들답지 않’은 ‘이 거리의 아이들’의 ‘이중성’을 약화시키는 소재이다.
- ⑤ ‘금속성인 광택’으로 상징되는 ‘무릉동 주민’의 욕망이 초래한 결과를 의미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낙토의 아이들」은 인간적 가치를 상실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무릉동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려는 비인간적인 가치관과 과도한 경쟁심을 가지고, 부자연스럽고 획일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태를 보여 준다. 이런 세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지만 물질의 편안함이 주는 일상에 안주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도 보여 준다.

- ① ‘모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묘안을 강구해’ 내는 것에서, 과도한 경쟁심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수재민 돕기’를 하려고 ‘별렀었’다는 것에서, 비인간적인 가치관을 지닌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물질의 편안함이 주는 일상에 안주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잘사는 사람다운 우월감’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것에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유의 회의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부자연스럽고 획일적인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 표기의 기준이 되는 한글 맞춤법 규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기본 원칙에 어법을 고려하여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을 덧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표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중세의 표기와 연음이 되는 환경에서의 표기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알아보자.

먼저 중세의 표기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성 표기에 여덟 개의 자음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기법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중성은 ㄱ, ㅇ, ㄷ, ㄴ, ㅂ, ㅅ, ㄹ의 여덟 자로써 넉넉히 쓸 수 있다.’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 중성 표기를 여덟 자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꿀 때 바뀐 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중세 국어의 문헌 가운데 『용비어천가』의 ‘꺄고’, ‘꺄쳐림’ ㉡ 예외도 나타난다. 근대 국어에서는 중성의 ‘ㄷ’과 ‘ㅅ’이 발음상의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ㄷ’을 ‘ㅅ’으로 적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 결과 중성 표기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자가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연음이 되는 환경에서의 표기를 보자.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의 자음 소리가 뒤의 초성에 옮겨 가서 발음되는 연음이 일어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용비어천가』의 ‘식미기픈 므른’의 ‘식미’, ‘기픈’, ‘므른’이 있다. 그런데 중세 국어 문헌 가운데 『월인천강지곡』에는 현대 국어와 같이 끊어 적기를 한 경우가 보인다. ㉢ 체언이 ‘ㄴ, ㄹ, ㅁ, ㅇ, ㅅ’과 같은 불충족의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 끊어 적기가 나타났고, 용언 어간이 ‘ㄴ, ㅁ’으로 끝날 경우에도 끊어 적기가 나타났다. 근대 국어에서는 ㉣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말음을 뒤에 이어 오는 조사나 어미의 초성에도 다시 적는 거듭 적기가 나타났다. ‘사름미’, ‘꺄픈’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중세 국어의 이어 적기 방식이 현대 국어의 끊어 적기 방식으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표기의 양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말 표기의 시대별 특징을 살펴 보면서 그 변화 양상과 법칙을 탐구하는 것은 국어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5.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중성에서는 ‘ㅂ’과 ‘ㄹ’의 발음이 구별되었다.
- ② 중성에서는 ‘ㄷ’과 ‘ㅅ’의 발음의 구별이 어려웠다.
- ③ 중성에 오는 자음은 여덟 개의 자음 중 하나로 소리 났다.
- ④ 중성에서 여덟 자의 자음 표기를 통해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고자 했다.
- ⑤ 여덟 자 이외의 자음은 중성에서 환경에 따라 바뀐 모습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36. ㉡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	㉣
①	맛고(맞고)	안아(안아)	님물(님을)
②	첫(첫)	답아(답아)	동녁꺄(동녁의)
③	받(받)	꿈안해(꿈 안에)	먹글(먹을)
④	꺄(꺄)	ㅁ숨애(마음에)	사라(살아)
⑤	뵤(있)	손으로(손으로)	님금미(임금이)

37. 다음은 수업 상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표준 발음법을 살펴보고 [자료]처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해 볼까요?

표준 발음법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5항 어간 받침 ‘ㄷ,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7항 관형사형 ‘-ㄴ(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ㄴ(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자료]

할게[할게]	훔고[훔꼬]	신다[신:파]
다듬지[다듬찌]	만날 사람[만날짜람]	

학생 : _____ ㉤

선생님 : 네, 잘했어요.

- ① ‘할게’는 관형사형 ‘-ㄴ’ 뒤에 ‘ㄱ’이 오기 때문에 제27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해요.
- ② ‘훔고’는 어간 받침 ‘ㅌ’ 뒤에 어미의 첫소리 ‘ㄱ’이 오기 때문에 제25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해요.
- ③ ‘신다’는 어간 받침 ‘ㄴ’ 뒤에 어미의 첫소리 ‘ㄷ’이 오기 때문에 제24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해요.
- ④ ‘다듬지’는 어간 받침 ‘ㅁ’ 뒤에 어미의 첫소리 ‘ㅈ’이 오기 때문에 제24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해요.
- ⑤ ‘만날 사람’은 관형사형 ‘-ㄴ’ 뒤에 ‘ㅅ’이 오기 때문에 제27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해요.

38.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과거 시제가 나타날 것.
 ㉡ 객체 높임 표현이 나타날 것.
 ㉢ 명사절이 문장 안에 안겨 있을 것.

조건	예문
㉠, ㉡	㉠
㉠, ㉢	㉡
㉡, ㉢	㉢

- ① ㉠: 날씨가 좋으면 형이 할머니를 모시고 나올 것이다.
 ② ㉠: 아버지께서 옷을 들고 저를 마중하러 나오셨습니다.
 ③ ㉡: 그가 아침에 수영장에 갔음을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
 ④ ㉡: 동생은 우산이 없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⑤ ㉢: 저는 어머니께 식사를 차려 드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3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승준, 아영, 민찬이 도서관 앞에서 만난 상황]

승준: 다들 ㉠ 이미 와 있었네. 책 찾으러 들어갈까?
 아영: 서우가 아직 안 왔는데, 연락해 볼까?
 민찬: 어제 ㉡ 우리 회의할 때, 서우가 오늘 모임에 30분 정도 늦을 거 같다고 ㉢ 우리한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잖아.
 승준: 맞아, 회의하다가 ㉣ 자기 좀 늦는다고 말했잖아. 곧 올 거야.
 아영: 아, 깜빡했네. 그럼 내가 서우를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게. 휴대폰으로 ㉤ 미리 자료 좀 찾고 있어야겠다.
 민찬: 그래. 그럼 ㉥ 우리 ㉦ 먼저 들어가서 책 보고 있을게.

- ①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② ㉠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이 가리키는 시간대보다 나중이다.
 ③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을 포함한다.
 ④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⑤ ㉡과 달리 ㉢은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40~43]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고, (나)는 (가)를 시청한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매주 목요일, 미디어가 변화시키는 문화를 훑아보는 '미디어와 문화'를 시작합니다. 실시간 댓글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진행자: 지난 시간에는 '뉴 미디어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전문가: 오늘은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모금함이나 ARS를 통한 전통적 방식의 기부가 줄어들고, 누리 소통망이나 스마트폰 앱과 같은 뉴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기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진행자: 아, 그렇군요. ㉠ 누리 소통망을 통한 기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가: 네. '참여형 챌린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참여자가 누리 소통망에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물을 올려 사회 문제를 알리거나, ㉡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게시물 수만큼 금액이 적립되어 기부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작년에 유행했던 '런 챌린지'의 실제 게시물 사진입니다. '런 챌린지'는 참여자가 운동 사진을 누리 소통망에 게시하면 게시물의 수만큼 희소병 협회에 기부금이 전달되는 챌린지예요. ㉢ 많은 유명인이 참여해 화제가 되었고 목표 모금액을 네 배나 초과 달성했죠.

진행자: 운동을 하고 게시물을 올리면 기부가 된다니 쉽고 즐겁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겠군요.

전문가: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리 소통망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유대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챌린지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참여형 챌린지는 기부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재미만을 추구하거나 보여 주기 식으로만 소비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진행자: 챌린지 참여자의 참여 태도가 중요하겠군요. ㉣ 그렇다면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부는 어떤 방식입니까?

전문가: 스마트폰 앱에서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만큼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실시간 댓글로 풀벌 녀께서 '가치건자' 앱은 걸음 수만큼 기부 포인트를 주는데, 걷기만 해도 기부할 수 있어 뿌듯하고 도전 과제를 수행하는 것 같아 재미있다고 하셨어요.

전문가: '가치건자'는 대표적인 기부 앱이죠. ㉤ 말씀하신 대로 앱을 통한 기부 역시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앱을 통한 포인트 기부 외에도 비영리 단체가 개발한 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기부자가 기부 금액을 정할 수 있어 기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진행자: 실제로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가 늘어나고 있나요?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모금함을 통한 기부는 2018년 32%에서 2022년 15.4%로, ARS를 통한 기부는 2018년 22.3%에서 2022년 6.3%로 감소한 반면,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는 2018년 21.1%에서 2022년 35.7%로 증가했어요.

진행자: 뉴 미디어가 기부 문화를 바꾸고 있군요.

전문가: 맞습니다.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는 작은 행동이지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손길을 더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진행자: 방송 시청 후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에 관심이 생긴 분들을 위해 '더 보기'에 다양한 기부 활동의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댓글 창이 열려 있으니 방송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

언어와 매체 시간에 미디어를 통한 긍정적 활동을 찾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 방송을 참고해 슬라이드를 제작해야겠어. 기부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 슬라이드는 기부 방식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기부 방식의 장점을 제시해야지.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 방식에 대한 ㉡ 슬라이드는 각 기부 방식의 예시를 안내하고 기부 참여 시의 유의점을 설명하되,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어야지.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송 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화면을 제공한다.
- ② 본방송을 중간부터 시청한 수용자를 위해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 ③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의 예시를 제시한다.
- ④ 방송 내용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난주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방송 내용을 설명한다.
- ⑤ 방송 내용이 수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 댓글 창의 일부이다. 참여자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디어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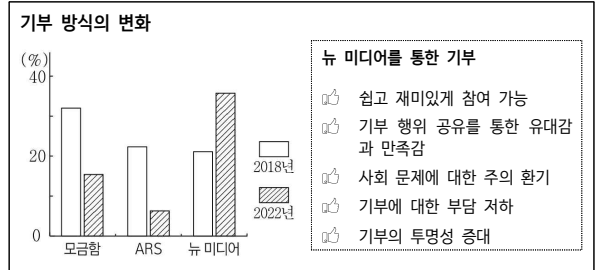
미소: 전 학생이어서 매달 2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군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려 주지 않아 아쉽습니다.

셋별: 전통적 방식의 기부는 좋고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가 늘었다는 내용은 어느 단체의 조사를 기반으로 한 거죠? 실제로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가 증가했다는 걸 믿기 어렵습니다.

낫달: 방송 후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최근 디지털 세계의 영향력이 정말 커졌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오늘 방송은 정말 의미 있고 적절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생각해요.

- ① '미소'는 정보 전달자의 전문성에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미소'는 방송 내용에 관한 자신의 경험에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③ '셋별'은 방송에서 전달한 정보의 출처에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낫달'은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⑤ '낫달'은 추가로 수행한 탐색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에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슬라이드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손길 - 뉴 미디어를 통한 쉽고 즐거운 기부

누리 소통망을 통한 기부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게시물 올리면 게시물 수만큼 기부금 적립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부

- [가치검색]** 걸음 수만큼 기부 포인트를 증명하는 앱
- [푸른별지킴이]**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앱
- [어린이공길]** 소액 기부도 가능한 비영리 단체 공식 앱

△ 단, 단순히 재미 추구나 과시를 위해서만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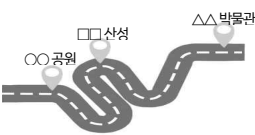

- ① 기부 방식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로 한 ㉠은 기부 방식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여 주자.
- ② 새로운 기부 방식의 장점을 제시하기로 한 ㉠은 전통적 방식의 기부와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의 차이를 비교해 제시하자.
- ③ 각 기부 방식의 예시를 안내하기로 한 ㉡은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예시를 추가하자.
- ④ 기부 참여 시의 유의점을 설명하기로 한 ㉡은 전문가가 언급한 참여형 챌린지에 대한 비판 내용을 바탕으로 유의점을 제시하자.
- ⑤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은 전문가가 언급한 말을 활용하여 만든 제목을 달자.

4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종결 어미 '습니까'를 사용하여,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 중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 ② ㉠: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기부금 적립의 조건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 ③ ㉡: 보조사 '나'를 사용하여, '런 챌린지'가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한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 관형사 '어떤'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부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⑤ ㉢: 부사 '역시'를 사용하여, 앱을 통한 기부의 장점이 누리 소통망을 통한 기부의 장점과 같음을 나타내고 있다.

[44~45] (가)는 누리 소통망에 올리기 위해 '현규'가 제작한 게시물 초안이고, (나)는 (가)에 대해 학생들이 진행한 온라인 화상 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게시물 페이지 1	게시물 페이지 2
<p>사진 동아리와 여행 동아리가 함께하는</p> <p>사진과 함께하는 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XX. 07. XX. • 장소: ○○고등학교 주변 명소 • 대상: ○○고등학교 학생 	<p>일일 사진 강의와 함께 떠나는 여행!</p>  <p>여행에 사진작가의 사진 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p>
게시물 페이지 3	게시물 페이지 4
<p>어디로 여행을 떠날까?</p>  <p>학교 주변의 명소로 여행을 떠나요!</p>	<p>여행의 추억을 오래도록</p>  <p>전교생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공유 앨범으로 추억을 나누어요!</p>

(나)



현규: 이제 회의를 시작할게. 다들 내 목소리 잘 들려?
한나: 현규야, 소리가 잘 안 들려. 오디오 설정 좀 확인해 줘.
현규: 어, 그래? 내 마이크 음량을 키워 볼게. 지금은 어때?
한나: 이제 잘 들려. 그런데 민이는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한대.
 내가 회의를 녹화해서 보내 주려고 하는데, 동의하니?
현규, 태영, 은지, 성범, 가희: 응, 그래.
한나: 고마워. 그럼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할게.
현규: 지난 회의 때 사진 동아리와 여행 동아리의 연합 활동으로 '사진과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했잖아. 지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 누리 소통망에 홍보할 게시물 초안을 제작해 봤어. 오늘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보자.
태영: 첫 페이지에도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 잠시 내 화면을 공유해 볼게. 내 누리 소통망 화면인데 여기 보이는 많은 게시물 중에 글자로만 이루어진 게시물보다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된 게시물이 더 눈에 띄지?
성범: 응,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니까 시선이 먼저 가게 되네.
은지: 방금 간단히 그려 봤는데 이런 그림을 넣으면 어때? (파일을 전송한다.) 카메라를 든 여행객을 통해 우리 여행의 주제를 한눈에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현규: 오, 좋은데? 이런 그림이 포함되면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우리 여행의 주제도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겠어. 이 그림 조금 더 보완해서 보내 줄 수 있어?

은지: 응! 회의 끝나면 다시 그려서 이메일로 보낼게.
성범: 게시물 페이지의 순서를 바꾸자. 내가 여행 지원자라면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 사진 강의보다 여행 코스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면 어때?
가희: 나도 동의해. 누리 소통망 이용자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게시물은 끝까지 보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먼저 제시하는 게 좋겠어.
은지: 여행 코스를 안내할 때 여행지 사진도 제시할까? 사진을 보여 주면 여행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소개할 수 있잖아.
성범: 그게 좋겠다. 사진 답사 때 사진 동아리가 촬영한 여행지 사진들을 정리해 볼게.
가희: 사진 강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어떨까? 여행을 함께할 사진작가가 운영하는 누리집 주소를 채팅 창에 올릴게. 클릭해서 스마트폰 사진 강의 소개 글을 참고해 봐.
태영: 가희가 보내 준 누리집 주소를 클릭해 봤는데, 사진 강의를 소개하는 내용이 상세해서 참고할 게 많네.
한나: 초안에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을 인화해 준다는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 스마트폰 공유 앨범은 전교생 모두 접속할 수 있지만, 인화된 사진은 참가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니 꼭 안내하면 좋겠어.
현규: 그러자. 그럼 내가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홍보 게시물을 수정할게. 다시 검토해 줘.

4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규'는 오디오 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음성이 잘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 ② '한나'는 회의 녹화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 회의 내용을 공유하려 하고 있다.
- ③ '태영'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은지'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이전 회의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희'는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하이퍼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45. (나)를 바탕으로 (가)를 수정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들이 게시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게시물 페이지 1'에 여행지 사진을 추가한다.
- ② 사진 강의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게시물 페이지 2'에 제시된 그림을 삭제한다.
- ③ 여행지를 안내하기 위해 '게시물 페이지 3'에 여행지를 설명하는 글을 추가한다.
- ④ 참가 시 주어지는 혜택을 강조하기 위해 '게시물 페이지 4'에 참가자에게 사진을 인화하여 제공한다는 정보를 추가한다.
- 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가 먼저 제시될 수 있도록 '게시물 페이지 3'과 '게시물 페이지 4'의 순서를 맞바꾼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